

## 치유농업 형태별 수요자 인식 및 수요분석

배승종 · 김대식\* · 김수진\*\* · 김성필\*\*\* · 이왕록\*\*\*\* · 류진석\*\*\*\*\* · 김정은\*\*\*\*\* · 박신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교수 ·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건국대학교 보건환경과학과 조교수

## Recognition and Demand Analysis of Agro-healing Services by Supply Types

Bae, Seung-Jong · Kim, Dae-Sik\* · Kim, Soo-Jin\*\* · Kim, Seong-Pil\*\*\* · Lee, Wang-Lok\*\*\*\* ·  
Ryu, Jin-Seok\*\*\*\*\* · Kim, Jeong-Eun\*\*\*\*\* · Park, Sin-Ae\*\*\*\*\*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Dept.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Dep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Konk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demand such as recognition level, policy necessity, service demand and policy demand by supply types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agro-heal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survey on awareness, 45.2%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healing farming, and 31.3%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agro-healing services. 63.6%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agro-healing services. Respondents who had no knowledge of agro-healing services responded that 76.7%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not participate. More than two-thirds of respondents in all types indicated that they needed agro-healing servic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maximum willingness to pay, there was a willingness to pay for farm work healing about 15,800 won, horticulture healing about 14,800 won, forest healing about 13,400 won, and animal assisted healing about 17,000 wo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strengthening awareness were high priorities for inconveniences and improvements. 70.1%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policies for agro-healing services are needed. Development of agro-healing programs and contents was the first priority for support polic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ference data that can be suggested for agro-healing policy establishment.

**Key words** : Agro-healing Service, Supply Type, Demand Analysis, Consumer Research

## I. 서론

최근 선천적 장애 뿐 아니라 직장, 학교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취약해진 사람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치유를 꾀하는 행위, 즉 치유농업(agro-healing)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Hong and Lee, 2016). 치유농업이란 ‘농업이나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RDA, 2013).

치유농업은 자연환경을 기초로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치유활동이 존재한다. 유럽에서는 녹색치유(green care)라는 용어로 소개되고 있으며,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요소가 ‘자연’(nature)에서의 신체적 활동, 규칙,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회 등의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Hine et al., 2008). 또한, 치유농업을 제공하는 장소의 경우 공원이나 식물원, 농장, 동물사육장, 수풀, 농촌 마을 등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농촌과 농업이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가능하며, 노인이나 성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과 수련 시설, 상담 시설, 특수교육기관 등,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보호하거나,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Kang et al., 2018).

치유농업은 제공하는 활동 형태에 따라 원예치유, 산림치유, 농작업치유, 동물매개치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RDA, 2017), 치유농업이라는 개념화와 실천에 대한 연구가 지자체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을 주축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Kang et al., 2018). 산림청은 2007년 숲을 이용한 건강·치유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하여 치유의 숲 조성모델, 산림치유효과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고, 2009년 경기양평에 산음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횡성, 장성, 장흥, 가평 지역에 치유의 숲을 개설하였으며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하였고(Shim et al., 2013) 프로그램을 운영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Kang et al. 2018). 원예치유의 경우, 도시농업에서 활발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가 2011년 6월 9일 창립되어 복지원예사 자격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RDA, 2017). 마사회는 말을 활용하여 치료를 담당할 재활승마 지도사를 연수와 시험을 통하여 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치유농업의 형태별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 및 요구, 국가차원의 정책이나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일반시민대상의 치유농업수요조사에서 국민의 지불의사는 26개 활동에 39조 정도로 추정하였다(Kang et al. 2018에서 재인용). Park et al.(2017)은 1개 특별시와 5개의 광역시에 거주하는 1,302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참여경험, 요구 및 이용형태, 이용료 지불의사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2015년 현재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망 의사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치유농업 이용 시 당일 이용 또는 1박 2일-3박4일의 이용형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치유농업 운영 형태, 정책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의 운영 형태를 국내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활동유형에 따라 농작업치유, 원예치유, 산림치유, 동물매개치유로 구분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형태별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수준과 참여기간·불편사항·개선사항·기대효과 등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각 기관별로 추진 중에 있는 형태별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수도권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20~59세 7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6.1%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7.0%, 대구 12.1%, 대전 7.6%, 광주 7.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비는 50:50이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22.7%, 30대 24.3%, 40대 26.9%, 50대 26.1%로 나타났다(Table 1).

### 2. 설문항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응답자 기본정보 항목 외에 치유농업의 인식 및 정책의 필요성 6항목, 치유농업 서비스 수요에 대한 8항목, 치유농업 정책 수요에 대하여 9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Region	Male					Female					Total
	20 to 29 years old	30 to 39 years old	40 to 49 years old	50 to 59 years old	Sum	20 to 29 years old	30 to 39 years old	40 to 49 years old	50 to 59 years old	Sum	
Seoul and metropolitan area	45	49	52	48	194	46	50	53	50	199	393
Busan	14	14	15	17	60	12	13	16	18	59	119
Daegu	10	9	12	12	43	9	9	12	12	42	85
Gwangju	6	7	7	6	26	5	6	7	6	24	50
Daejeon	6	7	7	7	27	6	6	7	7	26	53
Sum	81	86	93	90	350	78	84	95	93	350	700

Table 2. Survey results of recognition on agro-healing

Category	Gender&Age	Total	Gender		Age			
			Male	Female	20 to 29 years old	30 to 39 years old	40 to 49 years old	50 to 59 years old
Total		700	350	350	159	170	188	183
Awareness of agro-healing (%), (N=700)	Know a lot	3.9	4.6	3.1	3.8	5.3	2.1	4.4
	Know a little bit	41.3	41.1	41.4	35.2	37.6	41.5	49.7
	Not know at all	54.9	54.3	55.4	61.0	57.1	56.4	45.9
Total		316	160	156	62	73	82	99
The cognitive channel of agro-healing(%), (N=316)	Mass media	88.6	88.8	88.5	90.3	80.8	91.5	90.9
	Agriculture related event	19.9	23.1	16.7	27.4	41.1	13.4	5.1
	Agricultural and rural related institution	14.2	16.3	12.2	4.8	20.5	13.4	16.2
	Etc.	1.3	0.6	1.9	3.2	1.4	1.2	0
Total		316	160	156	62	73	82	99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agro-healing activity (%), (N=316)	Experience	31.3	29.4	33.3	40.3	39.7	23.2	26.3
	No experience	68.7	70.6	66.7	59.7	60.3	76.8	73.7
Total		99	47	52	25	29	19	26
Reason for participation in agro-healing activity (%), (N=99)	Experience	63.6	63.8	63.5	52	72.4	78.9	53.8
	Rest	53.5	57.4	50	32	72.4	63.2	46.2
	Healing	47.5	53.2	42.3	48	55.2	42.1	42.3
	Leisure	46.5	40.4	51.9	24	51.7	52.6	57.7
	Education	28.3	27.7	28.8	44	34.5	15.8	15.4
Total		99	47	52	25	29	19	26
Intention to participate agro-healing activity in future*(%), (N=99)	Ye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o	0	0	0	0	0	0	0
Total		601	303	298	134	141	169	157
Intention to participate agro-healing activity in future**(%), (N=601)	Yes	76.7	75.9	77.5	73.1	78	75.1	80.3
	No	23.3	24.1	22.5	26.9	22	24.9	19.7

\* (Before participating in the survey) For participant of existing agro-healing activity /

\*\* For respondent who do not have agro-healing activity

항목,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7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sion 22.0)으로 분석하였다. 각 수집항목에 대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치유농업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 1.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설문 참여 이전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많이 알고 있다 3.9%, 조금 알고 있다 41.3%, 전혀 모른다 54.9%로 나타났으며, 치유농업 인지자의 정보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대중매체가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관련 행사 19.9%, 농업농촌 관련기관 14.2% 순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인지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참여 경험 있음 31.3%, 참여 경험 없음 68.7%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ark et al.(2017)에서 제시된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 경험과 매우 유사하게 조사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치유농업의 홍보가 아직까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 경험자 대상으로 참여 이유를 살펴본 결과 체험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휴양 53.5%, 치유 47.5%, 여가 46.5%, 교육 28.3%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치유농업 활동 참여자 대상으로 재참여 의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재참여 의사 있음 100%로 나타났다. 반면, 설문 참여 이전에 치유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응답자(601명)의 향후 치유농업 활동 참여 의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참여의사 없음이 23.3%, 참여 의사 있음이 76.7%로 나타났다(Table 2).

#### 2. 치유농업 형태별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 가. 필요성 인식 및 참여의향

치유농업의 형태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농작업 치유의 경우 71.0%, 원예치유 71.3%, 산림치유 79.0%, 그리고 동물매개 치유 68.0%로 나타났다. 치유농업의 형태에 따른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농작업 치유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 또는 참여할 의향이 있는 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61.0%, 보통이다 27.6%, 참여할 의향

Table 3.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intent of participation by agro-healing types

Category	The number of respondent	Response	Awareness of the necessity(%)				Intent of participation(%)				
			Farm work -healing	Horticulture -healing	Forest -healing	Animal -healing	Farm work -healing	Horticulture -healing	Forest -healing	Animal -healing	
Total	700	Positive*	71.0	71.3	79.0	68.0	61.0	61.1	73.4	53.7	
		Normal	23.3	23.6	18.3	25.6	27.6	26.6	20.1	28.1	
		Negative**	5.7	5.1	2.7	6.4	11.4	12.3	6.4	18.1	
Age	20 to 29 years old	159	Positive	65.4	61.0	69.8	70.4	52.2	52.2	61.0	62.3
		Normal	27.7	29.6	24.5	24.5	31.4	30.8	27.0	22.6	
		Negative	6.9	9.4	5.7	5.0	16.4	17.0	11.9	15.1	
	30 to 39 years old	170	Positive	72.4	76.5	82.4	75.9	64.7	64.7	76.5	64.7
		Normal	20.6	20.6	14.1	17.6	22.9	23.5	17.1	21.8	
		Negative	7.1	2.9	3.5	6.5	12.4	11.8	6.5	13.5	
	40 to 49 years old	188	Positive	64.4	68.1	78.2	60.6	57.4	59.6	71.3	46.8
		Normal	29.3	26.6	19.7	30.9	31.4	28.7	22.3	34.0	
		Negative	6.4	5.3	2.1	8.5	11.2	11.7	6.4	19.1	
50 to 59 years old	183	Positive	81.4	78.7	84.7	66.1	68.9	67.2	83.6	43.2	
	Normal	15.8	18.0	15.3	28.4	24.6	23.5	14.8	32.8		
	Negative	2.7	3.3	0.0	5.5	6.6	9.3	1.6	24.0		

\* Positive(Very necessary/necessary, Be very willing to participate/Be willing to participate)

\*\* Negative(Not need/No need at all, No intention to participate/No intention to participate very much)

이 없는 편이다 또는 전혀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11.4%로 나타났다. 원예치유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의향의 경우 긍정적 인식 61.1%, 부정적 인식 12.3%로 나타났고, 산림치유와 동물매개 치유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해서 각각 긍정적 인식이 73.4%, 53.7%로 나타났다(Table 3).

**나. 입장료 지불 의사 및 최대 지불의사 금액**

치유농업의 형태에 따른 일정액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방문할 의사를 살펴본 결과, 농작업 치유 활동에 대한 입장료 지불 의향 있음 63.0%, 입장료 지불 의향 없음 37.0%로 나타났고, 원예치유 활동의 경우 입장료 지불 의향 있음 61.4%, 입장료 지불 의향 없음 38.6%로 나타났다. 산림치유 활동은 입장료 지불 의향 있음 74.4%, 입장료 지불 의향 없음 25.6%로 나타났으며, 동물매개 치유 활동은 입장료 지불 의향 있음 53.3%, 입장료 지불 의향 없음 46.7%로 나타났다. 입장료 지불 의향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형태에 따른 최대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을 평가한 결과, 농작업 치유 활동 관련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평균 약 15,800원으로 나타났으며, 원예치유는 평균 약 14,800원, 산림치유 활동은 평균 약 13,400원, 동물매개 치유는 평균 약 17,000원으로 나타났다 (Table 4).

**다. 희망 이용횟수 및 체류기간**

1년 기준 희망 이용횟수를 평가한 결과, 농작업 치유 활동의 경우 희망 이용횟수는 연 6회 이상이 37.1%로

가장 많으며, 연 1회가 21.6%, 연 2회 16.6%순으로 나타났다. 원예치유 활동의 경우도 농작업 치유와 동일하게 연 6회가 36.2%로 가장 많으며 연 1회 24.1%, 연 2회 15.6%로 나타났다. 산림치유 활동의 경우, 연 6회 이상이 42.8%로 가장 많으며 연 1회 14.7%, 연 4회 12.4%로 나타났으며, 동물매개 치유 활동은 연 1회 31.4%, 연 2회 13.0%, 연 3회 9.7%, 연 6회 이상이 33.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1년 기준 희망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농작업 치유, 원예치유, 산림치유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희망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5).

1회 기준 희망 체류 기간을 평가한 결과, 농작업 치유 활동의 경우 희망 체류 기간이 당일이 48.4%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나절 이하 25.6%, 1박 2일-3박 4일 23.1%, 4박 5일-6박 7일 2.6% 순으로 나타났다. 원예치유 활동의 경우도 농작업 치유와 동일하게 당일이 47.6%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나절 이하 31.9%, 1박 2일-3박 4일 18.1%, 4박 5일-6박 7일 2.1%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치유 활동의 경우, 당일이 43.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박 2일-3박 4일 35.0%, 반나절 이하 19.1%, 4박 5일-6박 7일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매개 치유 활동은 당일 41.4%, 반나절 이하 39.3%, 1박 2일-3박 4일 16.9%, 4박 5일-6박 7일 1.4% 순으로 나타났(Table 5).

**라. 치유농업 전문가 필요성 인식**

치유농업에서 제공하는 전문교육을 받은 치유농업 전문가 필요성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농작업 치유활동의

Table 4. Willingness to pay for entrance fee and amount of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entrance fee by agro-healing types

Age	Category	The number of respondent	Response	Willingness to pay for entrance fee(%)				Amount of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entrance fee per day*(Won)			
				Farm work -healing	Horticulture -healing	Forest -healing	Animal -healing	Farm work -healing	Horticulture -healing	Forest -healing	Animal -healing
Total		700	Yes	63.0	61.4	74.4	53.3	15,887	14,806	13,404	17,079
			No	37.0	38.6	25.6	46.7				
Age	20 to 29 years old	159	Yes	58.5	50.3	59.7	54.7	21,366	18,983	12,512	23,668
			No	41.5	49.7	40.3	45.3				
	30 to 39 years old	170	Yes	68.8	68.2	80.0	61.8	15,812	15,349	15,770	18,816
			No	31.2	31.8	20.0	38.2				
	40 to 49 years old	188	Yes	59.6	60.6	76.6	53.2	12,701	12,241	11,424	12,825
			No	40.4	39.4	23.4	46.8				
50 to 59 years old	183	Yes	65.0	65.6	79.8	44.3	14,676	13,933	13,733	13,000	
		No	35.0	34.4	20.2	55.7					

\*Average amount of money

Table 5. The number of hopeful visits per year and preferred period of stay per visit by agro-healing types

Category Age	The number of respondent	Response	The number of hopeful visits per year(%)				Response	Preferred period of stay per visit(%)			
			Farm work -healing	Horticulture -healing	Forest -healing	Animal -healing		Farm work -healing	Horticulture -healing	Forest -healing	Animal -healing
Total	700	One	21.6	24.1	14.7	31.4	Less than half a day	25.6	31.9	19.1	39.3
		Two	16.6	15.6	13.1	13.0	The day	48.4	47.6	43.7	41.4
		Three	9.9	10.1	12.1	9.7	1night 2days-3nights 4days	23.1	18.1	35.0	16.9
		Four	10.6	10.7	12.4	9.0	4nights 5days-7days 6nights	2.6	2.1	2.0	1.4
		Five	4.3	3.3	4.9	3.6	1 hour	0.0	0.1	0.0	0.1
		More than six	37.1	36.2	42.8	33.3	No intention to stay	0.3	0.1	0.1	0.9
20 to 29 years old	159	One	25.8	32.1	24.5	29.6	Less than half a day	25.8	37.1	27.7	30.8
		Two	18.9	17.6	18.2	11.3	The day	50.9	46.5	45.9	47.8
		Three	11.9	13.2	17.6	11.3	1night 2days-3nights 4days	21.4	14.5	25.8	20.1
		Four	9.4	7.5	8.2	12.6	4nights 5days-7days 6nights	1.9	1.9	0.6	1.3
		Five	4.4	5.0	5.0	3.8	1 hour	0.0	0.0	0.0	0.0
		More than six	29.5	24.5	26.4	31.4	No intention to stay	0.0	0.0	0.0	0.0
30 to 39 years old	170	One	18.2	22.4	12.4	23.5	Less than half a day	30.6	35.9	20.0	34.1
		Two	20.6	15.9	14.7	17.6	The day	40.6	42.4	40.0	40.6
		Three	11.8	11.2	12.4	10.0	1night 2days-3nights 4days	25.3	18.2	36.5	22.4
		Four	12.4	11.8	12.4	9.4	4nights 5days-7days 6nights	3.5	3.5	3.5	2.4
		Five	4.1	4.1	5.3	4.7	1 hour	0.0	0.0	0.0	0.0
		More than six	32.9	34.7	43.0	34.7	No intention to stay	0.0	0.0	0.0	0.6
40 to 49 years old	188	One	23.4	24.5	15.4	35.6	Less than half a day	26.6	34.6	19.7	43.6
		Two	11.7	14.4	8.5	9.0	The day	50.5	46.8	46.3	38.3
		Three	8.0	8.0	11.7	9.0	1night 2days-3nights 4days	19.1	15.4	31.9	14.9
		Four	11.2	9.6	13.3	9.6	4nights 5days-7days 6nights	3.2	2.7	1.6	1.6
		Five	4.3	1.6	5.9	2.7	1 hour	0.0	0.0	0.0	0.5
		More than six	41.5	42.1	45.1	34.1	No intention to stay	0.5	0.5	0.5	1.1
50 to 59 years old	183	One	19.1	18.6	7.7	36.1	Less than half a day	19.7	20.8	10.4	47.0
		Two	15.8	14.8	12	14.2	The day	51.4	54.1	42.6	39.9
		Three	8.2	8.7	7.7	8.7	1night 2days-3nights 4days	26.8	24.0	44.8	10.9
		Four	9.3	13.7	15.3	4.9	4nights 5days-7days 6nights	1.6	0.5	2.2	0.5
		Five	4.4	2.7	3.3	3.3	1 hour	0.0	0.5	0.0	0.0
		More than six	43.2	41.5	54.1	32.8	No intention to stay	0.5	0.0	0.0	1.6

경우 75.9%, 원예치유 활동 73.4%, 산림치유 활동 77.1%, 동물매개 치유활동 70.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농작업 치유활동의 경우 50대, 동물매개 치유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각 분야별 치유농업 전문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마. 치유농업 관련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치유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점을 평가한 결과, 접근성 개선 40.1%, 홍보 및 콘텐츠 개선 23.4%, 이용시설의 다양화 17.0%, 경제적 지원 13.7%, 전문성 향상 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교 결과, 20대와 50대에서 접근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30대에서 홍보 및 콘텐츠 개

Table 6.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agro-healing expert by agro-healing types

Category Age		The number of respondent	Response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agro-healing expert(%)			
				Farm work -healing	Horticulture-healing	Forest-healing	Animal-healing
Total		700	Positive*	75.9	73.4	77.1	70.1
			Normal	20.1	22.3	19.4	24.4
			Negative**	4.0	4.3	3.4	5.4
Age	20 to 29 years old	159	Positive	69.2	73.0	67.3	75.5
			Normal	26.4	23.3	26.4	20.1
			Negative	4.4	3.8	6.3	4.4
	30 to 39 years old	170	Positive	81.2	75.9	83.5	76.5
			Normal	14.7	18.8	12.9	19.4
			Negative	4.1	5.3	3.5	4.1
	40 to 49 years old	188	Positive	69.7	70.2	74.5	63.3
			Normal	23.9	23.4	21.3	28.7
			Negative	6.4	6.4	4.3	8.0
	50 to 59 years old	183	Positive	83.1	74.9	82.5	66.7
			Normal	15.8	23.5	17.5	28.4
			Negative	1.1	1.6	0.0	4.9

\* Positive(Very necessary/necessary), \*\*Negative(Not need/No need at all)

Table 7. Inconvenient and improvement things related to agro-healing activity

Category Age		The number of respondent	Improving accessibility(%)	Improving promotion and contents(%)	Diversification of available facility(%)	Financial support(%)	Improving professionalism (%)	
Total		700	40.1	23.4	17.0	13.7	5.4	
The most inconvenient thing related to agro-healing activity	Age	20 to 29 years old	159	43.4	25.2	13.8	13.8	3.8
		30 to 39 years old	170	37.6	35.9	15.9	5.3	5.3
		40 to 49 years old	188	31.4	21.3	22.9	16.0	8.0
		50 to 59 years old	183	48.6	12.6	14.8	19.1	4.4
		Total	700	33.3	22.4	21.7	15.0	7.4
What should be improved most in relation to agro-healing activity	Age	20 to 29 years old	159	31.4	25.2	18.9	17.6	6.9
		30 to 39 years old	170	32.4	20.6	30.6	10.0	6.5
		40 to 49 years old	188	28.2	22.3	21.8	17.0	10.1
		50 to 59 years old	183	41.0	21.9	15.8	15.3	6.0
		Total	700	33.3	22.4	21.7	15.0	7.4

선, 40대는 이용시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치유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평가한 결과, 접근성 개선 33.3%, 이용시설의 다양화 22.4%, 홍보 및 콘텐츠 개선 21.7%, 경제적 지원 15.0%, 전문성 향상 7.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교 결과, 50대에서 접근성을 최우선 개선점으로 평가하는 반면, 30대는 이용시설의 다양화를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치유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미흡한 점을 평가한 결과,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35.1%, 효과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2.7%,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유농업 기관 설치 확대 23.1%, 치유농업 기관 또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8.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교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미흡한 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는 효과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미흡한 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 바. 치유농업 정책 관련 인식

치유농업 서비스의 정책 도입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70.1%, 보통이다 25.3%, 필요 없는 편이다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4.6%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Table 9). 치유농업 서비스 도입시 가장 적절한 이용료 부담형태 평가 결과, 지역사회 중심의 제공 방식 45.9%, 이용자 개인+국가/지자체 급여 형태 24.4%, 국가 주도의 부담 방식 22.7%, 전액 이용자 개인 부담 방식 7.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교 결과, 30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제공 방식을 적절한 이용료 부담형태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이용자 개인+국가/지자체 급여 형태를 적절한 부담형태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치유농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시기를 희망하는 정책을 평가한 결과, 1순위 기준(1+2순위)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9.0%(71.6%), 치유농업 시설 설립 32.3%(63.1%), 치유농

Table 8. The most deficient thing related to agro-healing activity

Age		Category	The number of respondent	Awareness of agro-healing, Strengthening of on/offline promotion(%)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effective agro-healing program(%)	Establishment of various agro-healing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agro-healing institution or employee(%)
The most deficient thing related to agro-healing activity	Total		700	35.1	32.7	23.1	8.7
	Age	20 to 29 years old	159	40.3	27.7	23.9	8.2
		30 to 39 years old	170	38.2	25.9	28.2	7.6
		40 to 49 years old	188	32.4	37.2	20.2	9.6
		50 to 59 years old	183	30.6	38.8	20.8	9.3

Table 9. Necessity of policy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gro-healing service

Age		Category	The number of respondent	Positive*(%)	Normal(%)	Negative**(%)
		Total	700	70.1	25.3	4.6
Age	20 to 29 years old		159	62.3	30.2	7.5
	30 to 39 years old		170	72.9	22.4	4.7
	40 to 49 years old		188	67.6	28.2	4.3
	50 to 59 years old		183	77.0	20.8	2.2

\*Positive(Very necessary/necessary), \*\*Negative(Not need/No need at all)

업 서비스 이용료 지원 16.6%(35.6%),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11.7%(28.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희망하는 경향, 30대는 치유농업 시설 설립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사. 기대효과**

향후 치유농업 참여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를 평가한 결과, 신체/정신건강 증진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활동 증진 11.0%, 직업 능력 및 취업기회 증진 10.6%,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 9.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2).

Table 10. Method of appropriate charge burden of agro-healing service

Age \ Category		The number of respondent	Individual-based payment(%)	Local government-based payment(%)	Individual + nation/local government payment(%)	Nation-based payment(%)
Total		700	7.0	45.9	24.4	22.7
Age	20 to 29 years old	159	11.3	46.5	21.4	20.8
	30 to 39 years old	170	4.1	50.6	20.0	25.3
	40 to 49 years old	188	6.9	40.4	25.5	27.1
	50 to 59 years old	183	6.0	46.4	30.1	17.5

Table 11. Preferred policy priority for revitalizing agro-healing service

Age \ Category		The number of respondent	Development of agro-healing program and content(%)	Establishment of agro-healing facility(%)	Support for agro-healing service charge(%)	Training of agro-healing specialists(%)
Total		700	71.6	63.1	35.6	28.9
Age	20 to 29 years old	159	71.1	64.8	37.1	27.0
	30 to 39 years old	170	67.6	67.1	38.2	25.9
	40 to 49 years old	188	70.2	63.3	31.9	33.5
	50 to 59 years old	183	77.0	57.9	35.5	28.4

Table 12. The expected effect of agro-healing

Age \ Category		The number of respondent	Improvement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motion of social activity(%)	Improving job skill and employment opportunity(%)	Increase in leisure and hobby activity(%)
Total		700	68.6	11.0	10.6	9.9
Age	20 to 29 years old	159	54.7	13.8	15.1	16.4
	30 to 39 years old	170	67.6	13.5	10.6	8.2
	40 to 49 years old	188	72.3	8.0	10.1	9.6
	50 to 59 years old	183	77.6	9.3	7.1	6.0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치유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유농업의 형태별 인식수준, 정책 필요여부, 서비스 수요 및 정책수요 등 전반적인 인식 및 수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치유농업 인식조사 결과 45.2%가 치유농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31.3%가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 이유는 체험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참여 의사는 100%로 나타났으며, 치유농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응답자의 76.7%가 향후 치유농업 활동에 참여 의사를 보여 향후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치유농업 형태별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치유농업 형태별 필요성은 농작업 치유, 원예치유, 산림치유, 동물매개 치유 등 형태별로 차이는 있으나 2/3 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및 최대 지불의사금액의 경우, 4가지 치유농업 형태 모두 입장료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지불의사 금액을 평가한 결과 농작업 치유 약 15,800원, 원예치유 약 14,800원, 산림치유 약 13,400원, 동물매개 치유 약 17,000원의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기준 희망 이용횟수의 경우 농작업 치유, 원예치유, 동물매개 치유는 연 1회 방문에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산림치유는 1-2달에 1회가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희망 체류기간은 당일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치유농업 전문가 필요성 질문에 대해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작업 치유의 경우 50대, 동물매개 치유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각 분야별 치유농업 전문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활동에 있어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접근성 개선, 현재 가장 미흡한 점으로는 인식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가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정책 도입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1%로 매우 높았으며, 희망 지원정책 1순위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방안이 미미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유농업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인식정보 뿐만 아니라, 불편사항 · 개선사항 · 전문가 필요성 등과 같은 해당 정책에 대한 수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활성화 전략 수립 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명: 생애 전 · 후반기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 설계 및 전략계획 연구, 세부과제번호: PJ01256401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References

1. Hine, R., Peacock, J. and Pretty, J., 2008, Care farming in the UK: contexts, benefits and links with therapeutic communities, *Therapeutic Communities*, 29(3): 245-260.
2. Hong, J. Y. and Lee, B. O., 2016,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 for Training Agro-healing Experts Using the AHP Method,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4(4): 419-429 (in Korean).
3. Kang, D. K, Lee, H. J. and Gim, G. M., 2018,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0(2): 23-54 (in Korean).
4. Lee, A. Y., Oh, Y. A., Kim, S. O., Kim, D. S. and Park, S. A., 2018, Survey on Demand and Operation Status of Care Farms in South Korea,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21(1): 1-13.
5. Park, S. A., Lee, A. Y., Lee, G. J., Lee, W. L., Bae, S. J., Park, B. J. and Kim D. S., 2017, A Study of Awareness and Needs for Care Farm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20(1): 19-24.
6. Park, S. Y., 2016, Basic Scheme for Systematic Introduction of Green Care in Agriculture in Korea, Ph. D.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7.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13, Strategic long term planning of green care based on agro-healing survey (in Korean).
8.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16, Understanding of agro-healing (care farming).
9.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17, Design of Agro-healing service in Agriculture Considering Life Cycle
10. Sempik, J., Hine, R. and Wilcox, D., 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A Report of Working Group

on Health Benefits of Green Care, COST.

11. Shim, C. D., 2013, A Study on the Utilization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of the Healing Forest, Ph. D.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 
- Received 20 August 2019
  - First Revised 23 August 2019
  - Accepted 26 August 2019